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9 ~ 2/2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슌오	담앤북스
2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7	능가경 강의	남희근 부기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8	어느 불교무신론자의 고백	스티븐 배럴리 공리	
4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홍타	민족사	9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10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카툰으로 만나는 일상의 행복

**행복한 명상카툰**  
글·그림 배중훈  
담앤북스 펴냄  
13800원

“우리 삶에도 신희등이 있습니다. 파란 불이 켜져 거칠 것 없이 달릴 때도 있지만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하지요. 그러다보니 누구든 자신의 삶에는 파란불만 켜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신희등이 파란색이면 누군가는 빨간불이라 갈 수가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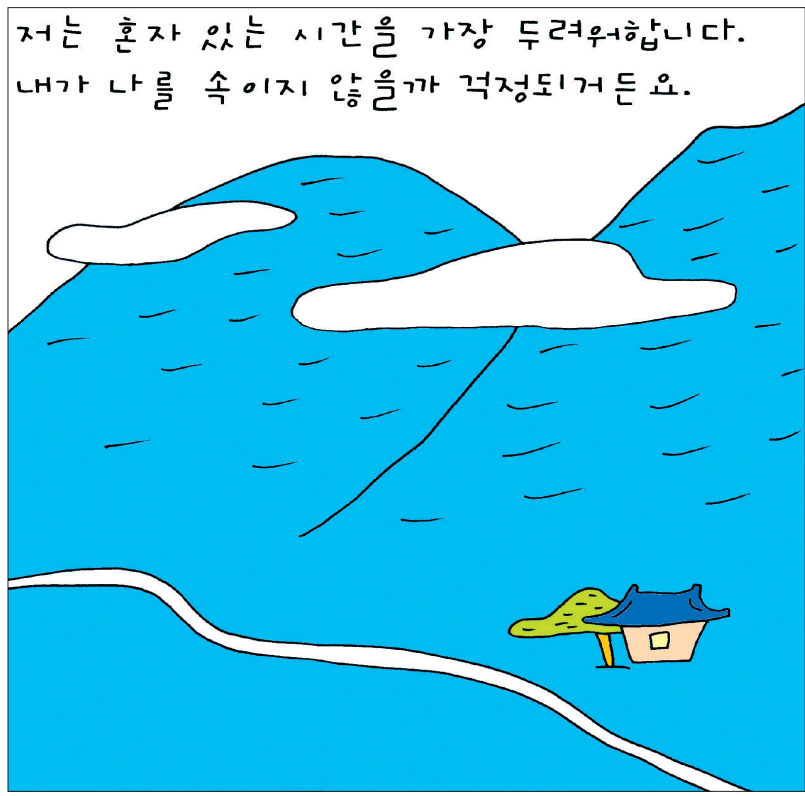
고락(苦樂)이 동반되는 중생의 세계에서 파란불과 빨간불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법. 하지만 매일 파란불만 켜지기를 바라는 중생이 빨간불의 존재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늘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신희등이 삶의 단순명료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음에도 말이다.

카투니스트 배중훈 작가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과 에피소드를 통해 짧은 법문을 전해준다. 그의 작품은 간결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다. <행복한 명상카툰>에 담긴 153컷의 카툰은 질주하는 우리네 일상에 침투를 던져준다. 그래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 책은 ‘하루하루’ ‘행복하기, 사랑하기’ ‘성공하기, 비워내기’ ‘마음수행’ 등 총 네 개의 장으로 나누어 일상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낸다. 작가는 일상의 순간을 정지시켜 카툰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짧고 담백한 글을 담아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비우며 살아가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지 마세요.”

혹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나태해지지 않나? 혼자만의 시간에서 철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과 함께 쓰는 시간도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장 두려운 시간’은 구름을 걸친 푸른색 산에 소박하게 자리한 산사를 통해 자신의 시간에 몇몇할 수 있다면 세상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울 일이 없음을 말해준다.



일상을 명쾌한 그림으로 표현  
짧고 담백한 글로 깨달음 전해

작가는 신희등, 컵라면, 겨울, 술병 등 주변의 사물들을 통해 일상을 돌아본다. 그렇다면 작가가 말하는 행복이란 뭘까? 그 답은 ‘최고의 라면 맛’에서 찾을 수 있다. “제 기억에 가장 맛있었던 라면은 군대에서 겨울 휴전기 훈련 마지막날 행군을 마치고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서서 먹었던 라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잊고 라면 맛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앉으면서 일어서서 생각하는 것보다 잠들기 전 내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잊고, 올지 모를 내일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우습지 않나요?”

그렇다. 우리의 행복은 지나 버린 과거에도 또 다가올 미래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그것이 선이고 곧 도다. 하지만 우리 속에 망상이라는 도둑이 들어오면 과거와 미래를 헤매다가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되지 않는가? 한 그릇의 컵라면은 이처럼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충고를 해주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그림에는 ‘익숙함’, ‘따

뜻함’ 그리고 ‘비움’이라는 코드가 담겨 있다. 그는 선이나 명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흔히 범할 수 있는 ‘뽀글’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현직 국어교사(성보중학교)인 작가는 일상 곳곳을 수행처 삼아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등산을 하다가, 편지를 쓰다가 문득 문득 느껴지는 것들을 주제로 찾아낸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익숙하다.

또 그의 그림은 따뜻하다. 그림 속에는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 마저 보내는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그림에는 여유와 비움이 있다. 장황한 설명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느껴질 만큼 많은 공간과 단순함이 그의 그림 속에는 있다.

작가는 말한다. “깨달음, 행복, 사랑 만족...이 모든 것을 밖에서 찾고 계시지 않나요? 자신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마음의 주인 되세요. 그리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 <행복한 명상 카툰>을 읽으며 밖으로 향했던 마음을 안으로 모아보자. 그래서 하루하루를 되새기고 돌아보며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보자.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중국판 <담마빠다> 아닌 부처님 <담마빠다>

담마빠다(법구경)  
일야 옮김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천원



“진리란 더 말할 것도 없이 간단명료한 가르침이다. 따라서 그 표현도 더없이 단순하고 소박하다. 짧은 글 속에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이 경전의 원 이름 <담마빠다>가 곧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정 스님.

<법구경> 또는 법정 스님이 번역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 경전 <담마빠다>이다. 이 책은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으로 한국에 초기 불교 대중화의 초석을 놓은 일야 스님의 <담마빠다> 번역본이다. <담마빠다>는 부처님 직제자들에게 의해 집성된 초기경전인 빠알리 경전 중에서도 그 성립 연대가 가장 오래

된 경전으로, 423개의 계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수하고 소박한 글 속에 번득이는 지혜를 담고 있는 <담마빠다>는 영어 번역 본만도 100종이 넘는 만큼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되고 전 세계에서 두루 읽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다.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에 국적과 신분과 종교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깊은 감명을 주는 <담마빠다>이다. 빠알리 경전 연구의 권위자인 일야 스님의 정확하고 간결한 번역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이미 다양한 판본의 <담마빠다>가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담아낸 <담마빠다>가 아니라, 중국을 통과하면서 중국적인 사유가 첨가된 ‘중국판 담마빠다’, 즉 <법구경>이 주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실제로 빠알리 원문은 26장 423개 계승으로 되어 있는데, 한역본은 39장 752개 계승으로 된 것과 33장 950개 계승으로 된 판본이 있다.

<담마빠다>가 아닌 <법구경>이 주로 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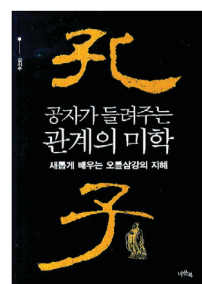
히는 현 상황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법구경>에는 중국 고유의 사유와 부처님 가르침이 혼재하고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오래전부터 빠알리 경전을 탐독하고 있었고, 이런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빠알리 원문을 번역한 몇몇의 <담마빠다>가 국내에도 출시되었지만 불교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부합되는 면이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번 책의 특징은 첫째, 직역을 하듯이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원문의 뜻에 충실했다. 둘째, 빠알리 원문을 함께 실어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셋째, 영어 번역을 함께 실었다. 넷째,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다. 다섯째, 어려운 불교 용어의 이해를 돕는 주석을 달았다. 여섯째, <담마빠다>의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자세한 정보를 부록으로 실었다.

박재원 기자 wanhillo@hyunbul.com

## 새롭게 배우는 오륜삼강의 지혜

공자가 들려주는 관계의 미학  
김지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유교의 오륜을 중심으로 세간의 인간 관계에 대해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고, 그래서 사람간 평화는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관계를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의 기반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누군가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성을 저자는 소아(小我)와 대아(大我)의 조화로 표현한다.

“각자 다양한 소아(小我)간에 서로 개성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런 조화를 이룰 때, 하나의 대아(大我)에 녹아들어 궁극의 ‘대

동(大同)’에 이른다.” 불교의 오계에 충실히 살아온 저자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다. 화(和)를 중심으로 인간 관계와 사회관계, 나아가 나라 사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대동사회를 제시하며 이를 이루는 길로써 전통적 오륜과 삼강의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책은 단순히 과거 전통을 답습하거나 재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오륜과 삼강의 정신을 토대로 둘 때만이 인간관계의 아름다움 조화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열린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책은 총 아홉 꼭지로 구성됐다. 공자와 유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전락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유교 사상이 새로운 문화시대의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정신을 전망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륜과 삼강, 유신 등의 전통 규범은 사실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마련됐다.

이어 유교의 오륜을 철폐별로 나눠 본래 참뜻을 밝힌 후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새로 듣는 군신유의’ 편에서는 전통적 유교의 본래 정치철학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인 민본주의 왕도정치에 있다며 이를 현대 정치사에 되바꾸는 전통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이 책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철폐 ‘관계의 미학’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내세운 오륜과 삼강윤리에 갖는 중용의 미덕이 현대인에게 중요한 덕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동양사상에 심취해 다년간 유불선을 공부해온 저자의 통찰력은 유교의 인, 의, 예, 지, 신 다섯가지 오상(五常)을 불교 오계와 대비하며 상관성을 짚어보는 데서 발한다. 예를 들어 불살생은 여섯 인(仁)의 핵심으로 이는 다시 불교의 자비라는 생명윤리로 승화된다. 술을 삼가라는 오계는 지(智)로서 이는 다시 지혜로 연결된다.

신과인의 조화, 나아가 타인과 세상과의 조화와 평화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깊고 풍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수취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결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기풍(교향 지르는 할·백이 대표적)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실려한 명저다. 임제록은 조계종의 선백(禪)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

**‘줄 없는 거문고’ 연주하고 ‘구멍 없는 피리소리’ 들으며 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 하는 ‘밀 없는 배’**

**간화선 수행의 실제와 깨달음의 연금술**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청원무이 저 | 461판 | 흑백 | 468쪽 | 15,000원

이 책은 청원 무이법사(지불회 지도법사)의 30여 년에 달하는 진솔하면서도 감동적인 구도기로부터 시작된다. 제1장 평상심의 일상, 제2장 불조(佛祖)의 가르침과 수행의 실제, 제3장 깨달음의 연금술, 제4장 선(禪)의 뒤안길, 그리고 화두 관문인 무이십관(無二十關)으로 구성된 이 책은 파란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해줄 ‘밀바닥 없는 배’가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5@daum.net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